

수치심의 다차원적 특성에 대한 개관: 개념적 혼란과 이론적 분절성, 그리고 평가-느낌-동기 모델의 의의*

정 미 영 정 윤 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수치심(shame)의 개념이 학문 분야와 이론적 접근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온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차원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정신분석, 정서이론, 현상학, 인지적 귀인이론, 기능주의의 논의를 분석하여 수치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네 가지 핵심 문제 - 연구 분야별 해석의 차이, 유사 정서 간 구분의 모호성, 측정 도구의 다양성과 비교 가능성의 제약, 문화적 구성 가능성과 해석의 유동성 - 를 도출하였다. 이어 Gausel과 Leach(2011)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이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이론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모델은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의 구분, 수치심 · 열등감 · 거절감의 분리, 평가-느낌 조합에 따른 개선 · 방어 동기의 분기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심을 단일 정서가 아니라 다차원적 구성요소의 연쇄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수치심의 개념적 지형을 재정리하고 향후 이론적 · 경험적 연구를 위한 통합적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어 : 수치심, 자기의식적 정서, 인지적 평가, 동기, 문화적 맥락

*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M2025B00020013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470, Email: benijeong@catholic.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수치심(shame)은 인간의 자기 지각과 사회적 평가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자기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 자기개념의 형성과 대인관계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arrett, 1995; Izard, 1977).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수치심은 초기 아동기의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와 도덕적 자기조절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서로 이해된다(M. Lewis, 2008; Tangney & Dearing, 2002). 즉, 개인은 수치심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기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그러나 수치심은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정신병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이로 인해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영역에서는 수치심이 주로 부적응적 정서로 간주되어 왔으며, 죄책감과 비교 속에서 그 병리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죄책감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수용을 촉진하는 반면,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동반하며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Tangney & Dearing, 2002).

정서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정서가 개인이나 공동체의 적응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라고 가정한다(Frijda, 1986; Keltner & Gross,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오랫동안 수치심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관해 축적된 연구결과들은 수치심의 본질과 의미, 기능이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최근에는 수치심의 이중적 성격과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보고되며, 수치심이 단순한 회피 반응을 넘어 자기성찰과 관계 복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de Hooge, Breugelmans & Zeelenberg, 2008; Gausel, Leach, Vignoles & Brown, 2012). 즉, 수치심은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병리적 정서가 아니라, 상황과 평가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복합적인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수치심 개념과 이론적 틀은 학문 분야별 강조점과 연구 전통에 따라 단편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수치심이 자기상(self-image)의 손상인지, 사회적 이미지(social-image)의 위협인지에 따라 개념 규정이 달라지고, 이를 내적 정서로 볼 것인지 사회적 정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수치심이 본질적으로 회피 동기를 유발하는 부적응적 정서인지, 혹은 자기개선이나 관계 복구에 이어질 수 있는 접근적 정서인지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였다. 이러한 분절성은 수치심 연구의 축적을 저해하고, 동일한 현상이 연구 맥락에 따라 상반된 결론으로 제시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치심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그 개념의 구조적 복잡성과 이론적 불일치를 정리하고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수치심이 어떠한 심리적 층위에서 정의되고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상이한 이론들이 서로 다른 전제 위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수치심 개념에 내재한 혼란과 이론적 분절성을 진단하고, 수치심 연구의 네 가지 핵심 문제를 분석적으로 도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ausel과 Leach(2011)가 제시한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수치심 개념의

혼란을 일정하게 체계화하려는 대표적 시도로 주목된다. 본 논문은 이 모델이 수치심 연구의 네 가지 핵심 문제에 어떻게 이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공헌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수치심 개념의 일관된 이해를 위한 통합적 이론 틀로서의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수치심 연구의 이론적 지형과 개념적 쟁점

다양한 이론적 접근

수치심은 학문적 전통마다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수치심을 둘러싼 개념적 복잡성과 해석의 다층성을 드러낸다. 본 절에서는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여, 각 이론이 수치심 개념화에 기여한 바와 내재된 한계를 함께 분석한다.

정신분석적 관점

정신분석 전통은 수치심을 자아(ego)와 자아 이상(ego-ideal) 혹은 자기 구조 내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핵심 정서로 개념화하였다. Freud(1923/1961)는 수치심을 독립적으로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초자아(super-ego)와 자아이상(ego-ideal)의 기능 속에 수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두었다. 이후 학자들은 수치심을 죄책감과 구분하면서, 자아와 이상적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정서로 체계화하였다.

Piers와 Singer(1954)는 수치심을 초자아의 자아 이상(ego-ideal)과 실제 자아(actual ego) 간 괴리에서 비롯된 정서로 설명하였다. 그들의 구분에 따르면, 죄책감은 초자아의 금지(prohibition)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정서이고,

수치심은 자아 이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 이때 수치심은 이상적 자기(ideal self)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험 이 아니라, 자아가 자아 이상과 맺는 관계의 긴장 속에서 파생되는 정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수치심을 내적 기준과의 불일치라는 정신분석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며, 죄책감과 개념적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후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은 수치심의 이해를 초자아 중심의 죄책감 모델에서 벗어나, 자기(self)의 응집성과 자기에적 취약성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해석하였다. Kohut(1971)은 아동 발달에서 경험되는 거울반응(mirroring)과 이상화(idealization)라는 자기 대상(self-object) 기능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경우, 자기의 응집성이 손상되고 그 틈에서 수치심이 자기에적 상처(narcissistic injury)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수치심을 단지 규범적 처벌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self)의 구조적 붕괴를 알리는 정동 신호로 이해하게 하였다. Morrison(1989)은 이를 계승하여 수치심을 ‘자기애의 이면(underside of narcissism)’으로 규정하며,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핵심적인 정동으로 강조하였다. Wurmser(1981, 1987)는 수치심을 자기에적 갈등과 공격성의 역동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수치심이 극심할 경우 단순히 위축이나 회피로만 이어지지 않고, 분노, 공격, 경멸로 치환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즉, 수치심은 은폐와 위장, 그리고 타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전적 방어(reversal defense)를 통해 ‘가면(mask)’을 쓰게 하고, 이는 수치-분노의 악순환(shame-rage spiral)과 경멸(contempt)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수치심을 사회적 관계와 공격성의 역동 속에서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갖는다.

발달이론적 관점에서 Erikson(1963)은 ‘자율성 대 수치·의심(autonomy vs. shame and doubt)’ 단계를 제시하였다. 유아가 독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나 반복적 실패를 경험할 경우,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일반화하며 수치심과 의심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지지와 균형 있는 훈육은 이러한 수치심을 규범 학습과 자기조절로 전환시켜 발달적으로 기능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수치심이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 기능과 병리적 기능 모두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정신분석적 전통에서는 수치심을 내면의 이상적 기준과 자아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정서로 개념화하였다. Piers와 Singer는 이를 초자아의 자아이상(ego-ideal) 구조 속에서 설명하였고, Kohut는 자기에적 발달 실패로, Erikson은 발달 단계에서의 핵심 정서로, Wurmser와 Morrison은 병리적 긴장과 자기에적 불안정성의 산물로 각각 확장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치심을 단순한 외부 평가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와 자아 구조의 내적 긴장 및 발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되는 정서로 강조함으로써, 수치심 연구의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점은 수치심을 자기 전체를 위협하는 병리적 정서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수치심이 지닌 맥락적·적응적 가능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분석적 관점은 수치심 개념의 심층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 기능적 다양성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남아 있다.

범주적 정서이론

범주적 정서이론(categorical emotion theory)은

수치심을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보편적 정서로 간주하며, 특정한 신체 표현과 행동 양식이 정서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정서를 문화와 맥락을 초월한 진화적 산물로 이해하며, 수치심 또한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 자동적 정서로 설명한다.

Tomkins(1962, 1963, 1987)의 정동이론(Affect Theory)은 이러한 범주적 접근의 대표적 예로, 수치심을 9가지 기본 정동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는 수치심을 도덕적 실패에 한정하지 않고, 흥미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동이 갑작스럽게 차단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수치심을 단순히 자기비난의 산물이 아니라, 긍정적 정동이 억제되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반응으로 위치시킨다. 따라서 수치심은 애착과 관심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정서적 교류가 단절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시선 회피·고개 숙임·안면 홍조 등 특유의 생리적·행동적 패턴을 동반한다.

Izard(1977, 1984)의 변별정서이론(Differential Emotions Theory, DET) 또한 수치심을 기본 정서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는 정서를 생리적 기제, 표정 및 행동 양식, 주관적 경험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단위로 이해하였다. 특히 수치심은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점차 정교화 되며, 아동기에는 자기 행동의 내적 조절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형성함으로써 도덕성, 자기 통제,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서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수치심은 선천적 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학습과 발달적 맥락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작용하는 정서로 이해되었다.

범주적 정서이론은 수치심을 진화적 적응

기능과 발달적 조절 메커니즘 속에서 보편적 정서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정서를 고정된 범주로 전제하는 한, 수치심 경험의 인지적 해석, 자기불일치의 의미,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변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남는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인지적 귀인이론 등에서 보완이 시도되었다.

현상학적 관점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수치심을 단순한 행위 실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로 이해한다. H. B. Lewis(1971)는 수치심을 자기 전체에 대한 비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죄책감과 본질적으로 구별하였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I did something bad)”는 행위 중심의 평가에 근거하는 반면,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I am a bad person)”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전면적 평가에 근거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수치심을 외부 규범 위반의 단순한 반응으로 한정하지 않고, 내면화된 자기 평가의 산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Lewis는 또한 수치심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이나 정서적 단절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unworthy of love)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아의 통합성과 자기존중감이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수치심은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직접 직면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회피하거나 다른 정서로 전위(displacement)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

서 수치심은 ‘우회된 수치심(bypassed shame)’으로 나타나며, 분노(anger), 냉소(cynicism), 자기비하(self-deprecation), 공격성(aggression)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수치심이 억압되거나 의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리적 정서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신경증적 반응의 기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결국 현상학적 관점은 수치심을 행위 실패가 아닌 자기 존재 전반에 대한 내면적 평가-특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서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수치심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서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기 평가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촉발되는지, 이후 어떻게 조절되고 동기적 결과와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wis의 분석은 수치심의 심층적 의미와 병리적 전환 가능성을 부각함으로써, 이후 수치심 연구가 정체성 위협과 심리적 붕괴의 맥락에서 이를 탐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인지적 귀인이론의 관점

인지적 귀인이론은 정서를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귀속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적 구성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접근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귀인 구조의 차이로 설명하며, 정서 발생과 동기적 결과를 아우르는 인과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H. B. Lewis(1971)는 수치심이 자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vs. 행동’ 구분을 제시하였다. Tangney, Dearing, Wagner & Gramzow(1989)는 이를 기반으로 자기보고식 시나리오 척도(TOSCA)를 개

발하여,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죄책감은 특정 행동 평가를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TOSCA 연구는 두 정서가 일상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분됨을 반복적으로 입증하며, 자기평가 방식과 정서 반응 간의 연관성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Weiner(1986)는 귀인 차원을 소재(locus)·안정성(stability)·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으로 구조화하고, 이러한 귀인 유형이 정서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수치심은 실패의 원인을 내적·안정적·통제 불가능한 특성(예: 능력 부족)에 귀속할 때 발생하며, 무력감, 자기 위축,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죄책감은 실패를 내적·통제 가능한 요인(예: 노력 부족)에 귀속할 때 발생하며, 책임 수용과 복구 행동을 촉진한다.

Tracy와 Robins(2004, 2006)는 Weiner의 틀을 기반으로 자의식 정서의 미세 구분을 정교화하였다. 특히 안정성(stability)과 전반성(globality)-원인이 개인의 지속적 특성인지, 특정 능력·행동에 국한되는지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핵심 평가 차원임을 제시하였다. 내적 원인을 전반적이고 안정적 속성으로 해석할 때 수치심이 강하게 유발되며, 이는 정체성 수준의 위협과 방어적·회피적 전략을 촉발한다. 반대로 원인을 특정적이고 불안정한 원인에 귀속하면 죄책감이 발생하며, 이는 행위 단위의 책임과 복구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Tracy와 Robins의 모형은 수치심을 단순한 자기평가의 산물로 보지 않고, 정체성의 안정성·자기 목표·사회적 평가가 결합된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귀인이론의 설명 범위를 확장하였다.

종합하면, 인지적 귀인이론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발생 메커니즘을 인지적 구조 속에서

정교하게 설명하고, 정서 형성과 동기적 결과를 연결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Lewis와 Tangney는 자기 vs. 행동 귀인을 통해 개념적 경계를 명확히 했고, Weiner는 귀인 차원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Tracy와 Robins는 안정성·전반성 평가가 정체성 위협과 사회적 목표와 결합하여 수치심을 특정 방향으로 조직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자의식 정서 이론을 보다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다만 이 접근은 실제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복잡성과 맥락적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정서, 죄책감을 적응적 정서로 이분화 할 위험을 내포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서를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을 돕는 행동 경향(action tendency)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수치심은 고통스럽고 회피적인 정서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과 관계 맥락 속에서 자기 조절과 사회적 적합성을 촉진하는 기능적 자원으로 설명된다.

Frijda(1986)는 정서를 행동 경향을 조직하는 심리적 체계로 보며, 수치심을 규범 위반이나 사회적 실패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회피·은폐 경향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수치심이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낮추고, 자기노출을 줄이며,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만드는 행동적 기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관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후 행동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장치로 설명된다.

Gilbert(1998, 2000)는 전통적 기능주의와 이

론적 기반은 다르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수치심이 수행하는 적응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기능주의적 함의를 공유한다. 그의 사회적 위계 이론(social rank theory)에 따르면, 수치심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하위 지위에 놓인 존재로 인식할 때 활성화되고, 이러한 인식은 복종적 행동(submissive behaviour)을 유발하여 지배자의 공격을 피하고 관계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이 관점에서 수치심은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내 수용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진화적 적응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기능주의적 접근의 기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치심을 단순히 병리적·무력화 정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규범 준수와 관계 유지라는 적응적 기능을 조명했다는 점이다. 둘째, 수치심을 행동 경향이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서-행동의 연결 구조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관점은 수치심의 적응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수준의 심층적 위협이나 부적응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동일한 맥락에서도 수치심이 개선 동기 또는 회피 동기로 분기되는 조건을 다루는 데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기능주의적 관점은 수치심을 사회적 맥락 속 행동적·진화적 기능을 지닌 정서로 개념화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수치심 연구의 확장 및 현대적 논의로 이어지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수치심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론적 전통 속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각 접근은 존재적 경험, 자기평가 구조, 귀인 차원, 사회적 위계, 기능적 행동 경향 등 서로 다른 심리적 수준

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 결과, 수치심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연구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고, 개념적 초점 역시 일관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어떤 관점은 수치심을 자기 전체를 위협하는 심층적 정서로 파악한 반면, 다른 접근은 평가·귀인 차원에 구조화된 정서로 설명하고, 또 다른 연구는 관계 회복이나 사회적 적합성을 조정하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수치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개념의 외연을 흐리게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기존 이론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데서 나아가, 각각의 접근이 수치심을 어떤 심리적 수준과 관점에서 정의해 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수치심 연구의 전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상위 문제들을 도출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네 가지 핵심 문제로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수치심 연구의 네 가지 핵심 문제

수치심은 연구 분야와 이론적 접근에 따라 개념 정의와 구조적 이해에서 상이한 해석을 보여 왔으며, 이는 학문적 혼란과 이론적 단절을 초래해 왔다. 그 결과 수치심을 단일하고 일관된 정서 범주로 정립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고, 실증 연구 간 결과 비교와 이론적 축적 역시 어려워졌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치심 개념의 혼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① 연구 분야별 해석의 차이, ② 유사 정서 간 구분의 모호성, ③ 측정의 다양성과 비교 가능성의 제약, ④ 문화적 구성 가능성과 해석의 유동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연구 분야별 해석의 차이

수치심은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등 다양한 하위 분야에서 핵심 정서로 연구되어 왔으나, 각 분야가 강조하는 정의와 기능적 해석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수치심의 개념을 다각도로 풍부하게 조명하는 기여를 하였지만, 동시에 연구 간의 해석 불일치와 이론적 단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수치심을 다양한 정신병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로 이해해 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뿐 아니라, 비난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blame)를 매개로 공격성이나 반사회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된다(Gilbert & Andrews, 1998; Kim et al., 2011; Stuewig, Tangney, Heigel, Hartley & McCloskey, 2010; Tangney et al., 1992; Velotti, Elison & Garofalo, 2014). 또한 수치심과 관련된 대인적 위협 민감성은 사회불안이나 편집성향과 같은 병리적 특성 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Baek & Lee, 2017). 이러한 결과들은 수치심이 그 처리 방식과 맥락에 따라 내면화·외현화 양 차원에서 다양한 정신병리적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reenberg(2004)는 정서중심치료(Emotion-Focused Therapy)에서 수치심을 새로운 정서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 과제를 강조하였으며, Gilbert(2010)는 자비중심치료(Compassion-Focused Therapy)를 통해 자기 연민을 회복하는 것이 수치심의 병리적 악순환을 중단하는 핵심 경로임을 밝혔다. 이처럼 임상적 접근은 수치심을 주로 부정적·병리적 정서로 규정하고, 이를 조절·재구성하는 과정을 치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

사회심리학은 수치심을 사회적 관계 조절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Leary와 Baumeister(2000)는 수치심을 사회적 배척 가능성을 탐지하는 정서적 신호로 설명하면서, 집단 내 수용 여부와 지위를 모니터링 하는 자의식적 정서로 규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수치심은 철수·숨기·회피 등 대인관계 위축과 연결되어 왔으나(H. B. Lewis, 1971; M. Lewis, 1992;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최근 연구들은 수치심이 상황에 따라 사회적 접근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de Hooge(2014)는 수치심을 ‘일반 소시오미터(general sociometer)’로 개념화하며, 소속 위협에 대한 경고 신호로서 협동·사과·친사회적 행동을 자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de Hooge, Breugelmans, Wagemans & Zeelenberg(2018)는 실험을 통해 수치심이 항상 사회적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다만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수치심은 과도한 자기 모니터링과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켜 소속감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Leary & Baumeister, 2000). 따라서 사회심리학은 수치심의 대인관계의 양가적 기능-도덕적·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접근적 효과와 대인관계 위축을 초래하는 회피적 결과-을 동시에 강조한다.

발달심리학은 수치심을 자기 인식 능력의 성숙과 양육 경험의 질적 맥락 속에서 출현하고 조절되는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 이해한다. M. Lewis(2008)는 수치심을 비롯한 자의식 정서를 특정 인지 능력이 성숙한 이후에야 출현 가능한 정서로 보았다. 그는 자의식 정서의 발생에 필요한 세 가지 인지적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표준·규칙·목표(standards, rules, and goals)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자기 행동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내면화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그러한 평가가 자기 전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때 수치심이 발생한다. 이때 수치심은 특정 행동의 실패를 자기의 전반적 결함으로 인식하는 전반적 자기 귀인(global self-attribution)의 결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인지적 구조는 유아기 후반에서 학령기 초반에 형성되며, 자기인식(self-awareness), 반성(reflection),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가 가능해지는 발달 단계와 일치한다(M. Lewis, 2008).

이러한 인지적 기반 위에, 수치심은 양육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조절된다. Schore(1994, 1996, 1998)는 수치심을 우뇌 기반의 정서조절 체계와 연결하며, 양육자와의 정서적 조율(attunement)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치심이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여 자기 성찰과 관계 회복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반복적 오조율(mis-attunement)과 회복 실패는 수치심을 자율신경계의 억제 반응과 연결시키며, 이는 자기 억압과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치심은 경험 그 자체보다도 긍정적 조율과 회복적 재조율(re-attunement)의 유무에 따라 병리적 혼란으로 남거나 적응적 자원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발달적 귀결에 주목한 연구들은 수치심이 도덕성, 자기통제, 정체성 발달의 핵심 정서임을 강조한다. Barrett(1995)은 수치심을 규범 내면화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정서적 기반으로 보았으며, Reimer(1996)는 청소년기에 경험되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가 수치심 경험을 빈번하게 하고, 이는 정체성 위기 및 성숙의 과

정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발달심리학은 수치심을 인지적-기원-정서적 조절-발달적 귀결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수치심은 인지 발달에 따라 형성된 자기인식과 사회적 기준을 전제로 하며, 양육 맥락에서의 정서적 조율에 따라 적응적 혹은 병리적으로 조절되고, 발달 과정에서는 도덕성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종합하면, 임상심리학은 수치심을 병리적 위험 정서,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조절 메커니즘, 발달심리학은 자기조절 및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정서로 각각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 따른 차이는 수치심 연구의 풍부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수치심이라는 동일한 정서가 연구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이 강조되는 해석의 단편성을 드러낸다.

유사 정서 간 구분의 모호성

수치심 개념의 지속적인 혼란은 그 자체의 복잡성뿐 아니라, 유사 정서들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수치심은 자의식 정서 중에서도 ‘수치심 패밀리(shame family)’에 속하는 다양한 정서들과 중첩되며(Wurmser, 1981), 이론적 전통마다 그 외연이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수치심은 분명한 이론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념적 구분이 일관되지 못한 채 논의되어 왔다.

먼저, 수치심과 당혹감(embarrassment)은 모두 타인의 존재, 사회적 평가 가능성, 규범 위반 인식을 전제로 하는 자기의식적 정서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Keltner & Buswell, 1997). 그러나 당혹감이 경미한 사회적 실수나 어색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행동 수준의 표면적 정서라면,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정체성 수준의 위협을 포함하는 보다 심층적 정서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당혹감은 시선 회피, 웃음, 사과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해소되지만, 수치심은 회피, 은폐, 위축, 자기 비난과 같은 지속적이고 강한 행동 경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둘째, 굴욕감(humiliation)은 수치심과 유사한 외현적 표현(예: 고개 숙임, 얼굴 붉힘)을 공유하지만, 발생 원인과 평가 구조에서 차별된다. 수치심이 주로 자기 내부의 도덕적 기준 위반에서 비롯된다면, 굴욕감은 타인의 공격, 부당한 대우, 권력 불균형과 같은 외적 위협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Baek & Lee, 2017). 따라서 굴욕감은 대인 맥락적 정서로서 외적 수치심(external shame)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자기 귀인 구조에 기반한 내적 정서로서의 수치심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 정서들의 혼재는 실제 측정 과정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ashamed(부끄러움), embarrassed(당혹감), disgraced(불명예), humiliated(굴욕감) 등이 함께 포함된다(Lickel, Schmader, Curtis, Scarnier & Ames, 2005). 이는 실증 연구에서 정서 간 경계가 자주 모호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되는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외부 시선과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험 수준에서는 유사 정서 간 경계가 더욱 흐려질 수 있다.

유사 정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이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H. B. Lewis(1971)의 구분을 계승하여,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I am a bad person)”라는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 평가에서 기인하며, 죄책감은 “나는 잘못

된 행동을 했다(I did something bad)”라는 특정 행위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정리하였다. 이 구분은 수치심은 회피·위축·방어 반응, 죄책감은 사과·보상·책임 수용 등 복구 행동을 촉발한다는 대조적 설명으로 발전하였고, 수치심을 병리적 정서로, 죄책감을 적응적 정서로 대비시키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후 축적된 연구들은 이러한 이분법이 실제 경험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실증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상당한 상관을 보이며(Ferguson & Crowley, 1997; Kim et al., 2011), 동일한 사건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다(Schmader & Lickel, 2006; Leach, 2017). 둘째, “수치심은 병리적, 죄책감은 적응적”이라는 도식은 두 정서가 공유하는 자기의식적 평가 기제와 맥락적 조절 가능성을 간과한다. 수치심은 상황에 따라 자기 변화나 사회적 복구 행동을 촉발할 수 있으며(Lickel, Kushlev, Savalei, Matta & Schmader, 2014), 죄책감 역시 과도할 경우 자기비난과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Kim et al., 2011). 셋째, 공변량 통제(covariate control)를 활용해 ‘shame-free guilt’와 ‘guilt-free shame’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연구 설계는 실제 경험의 복합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여(Ferguson & Crowley, 1997), 수치심의 적응적 가능성을 축소하고 죄책감의 병리적 측면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Blum, 2008).

종합하면, 수치심과 유사 정서들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중첩과 상호작용이 빈번하다. 따라서 이들을 단일 정서 범주로 환원하거나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는, 평가 구조와 맥락적 조건에 따라 변주되는 연속적 정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는 수치심의 다차원적 특성을

드러내고, 실증 연구에서의 개념적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측정의 다양성과 비교 가능성의 제약

수치심은 자기 평가와 정체성 차원에서 경험되는 심층적 정서로,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맥락적 상황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을 낳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는 수치심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각 도구가 전제하는 개념과 측정 초점이 상이하어 연구 간 비교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제약해 왔다(Blum, 2008; Simonds et al., 2016).

먼저 특질 수치심(trait shame) 측정은 크게 두 갈래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수치심 경향성(shame proneness)을 측정하는 접근으로, 대표적인 도구가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 계열이다(Tangney et al., 1989). TOSCA는 시나리오 기반 문항에 대한 전형적 반응 양식을 통해,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수치심을 얼마나 쉽게 경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SCA는 응답자의 성향적 반응 패턴을 포착하는 데 유용했으나, 수치심을 회피적·부적응적 정서로,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적응적인 정서로 대비시키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경험의 복합성과 수치심의 긍정적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Ferguson, 1996).

다른 한 갈래는 자기 개념 속에 수치심이 내면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접근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Internalized Shame Scale)가 대표적이다(Cook, 1987). ISS는 개인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수치심의 만성적·내면화된 양상을 드러내는 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부 문항은 자존감 개념과 중첩되어 수치심의 독립적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고(Andrews, 1998), 수치심을 병리적 정서로 환원하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적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OAS(Other As Shamer Scale)이다. Goss, Gilbert & Allan(1994)은 기존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Internalized Shame Scale)의 문항을 수정하여, 자기(self)가 아니라 타인(other)의 시선을 전제로 한 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라고 본다”)을 제시함으로써 외적 수치심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OAS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는 수치심, 즉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대한 민감성을 포착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척도는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진 자기 표상에 국한되므로, 자기 전체에 대한 내적 평가나 근본적 결함 인식과 같은 정체성 차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외적 수치심에 국한된 측정이라는 근본적 제약을 지닌다.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는 상태 수치심·죄책감 척도(SSGS: State Shame and Guilt Scale)가 있다(Marschall, Sanftner & Tangney, 1994). SSGS는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성격적 경향성이나 정체성 차원의 만성적 수치심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을 다차원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로 수치심 경험 척도(ESS: Experience of Shame Scale)가 개발되었다(Andrews, Qian & Valentine, 2002). ESS는 성격, 행동, 신체라는 세 영역을 구분하여 수치심을 측정하도록 설

계했지만, 실제 문항은 성격 차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특질 수치심 개념과의 중첩이 발생하고, 상호작용적·맥락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Lee, 2018).

종합하면, 수치심 측정 도구의 다양성은 정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결과 비교와 이론적 축적을 어렵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TOSCA는 수치심을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로, ISS는 병리적 정서로 환원시킬 위험을 내포했으며, OAS는 외적 맥락만을, SSGS는 상황적 반응만을, ESS는 제한된 경험의 영역만을 포착하는 경향을 지녔다. 이러한 도구적 한계는 단순한 측정상의 문제를 넘어 수치심 개념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특질 수치심을 측정해 온 결과, 수치심은 실제보다 훨씬 더 회피적·부정적 정서로 이해되기 쉬웠고 (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10; de Hooge, 2014), 그 안에 잠재된 자기 성찰·복구·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Lickel et al., 201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치심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정서로 간주되기 쉬웠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치심을 외면하는 ‘수치심의 결여(shamelessness)’라는 문화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Mason, 2010).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치심의 어느 차원(예: 특질 vs. 상태, 내적 vs. 외적, 정체성적 고착 vs. 상황적 반응)을 반영하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즉, 모든 연구가 동일한 “수치심”을 다루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개념적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비교와 해석에는 언제나 신중함이 요구된다.

문화적 구성 가능성과 해석의 유동성

수치심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발 조건, 해석 방식, 기능적 귀속이 달라질 수 있는 정서이다. 다시 말해, 수치심은 보편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문화적 자기모델과 사회적 기대가 강하게 조절되는 정서로 나타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권에 따라 자기 개념(독립적 vs. 상호의존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서구의 독립적 자기 맥락에서는 수치심이 자기 손상과 가치 하락으로 해석되기 쉬운 반면,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적 자기 맥락에서는 관계 회복과 규범 내면화를 촉진하는 정서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치심을 도덕적·사회적 질서와 연결된 관계적 정서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규모 문화 간 비교 연구에서 Wallbott와 Scherer(1995)는 37개국 표본을 대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의 평가, 귀인, 정서 강도, 표현, 신체감각이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타인의 평가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일수록 수치심 보고의 빈도와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Wong과 Tsai(2007) 역시 서구 중심의 이론 틀이 동아시아의 관계·체면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자기모델이 수치심의 해석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ung(1999)의 대만 아동 민족지학 연구는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수치심의 단서(shame cues)를 활용하여 도덕적 규범의 내면화와 ‘도덕적 자기(moral self)’의 형성을 유도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수치심이 단순한 회피적 정서가 아니라, 사회

화와 도덕적 훈육의 핵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국 맥락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Hong(2016)은 수치심을 객체화된 자기 인식(objectified self-awareness), 즉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인지 구조를 통해 경험되는 정서로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의 위계와 평판 중심적 맥락이 평가 구조에 깊숙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측정 연구에서도 문화적 특수성이 드러난다. Ferreira, Moura-Ramo, Matos & Galhardo(2022)가 개발한 외적·내적 수치심 척도(EISS: 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를 빈안·타당화한 연구에서, Kang, Byeon, Choi(2024)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내적·외적 수치심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고 단일 차원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한국 문화의 상호의존적 자기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자기 평가(내적)와 타인 평가(외적)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덜 구분되어 수치심이 통합적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은 국내 경험적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Nam(2008)과 Lee(2018)는 수치심 유발 상황을 범주화하면서(각각 9개, 4개 범주), 공통적으로 자기반성을 핵심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수치심이 병리적 정서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성찰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Yang과 Lee(2024)는 수치심을 사회적 수치심(social shame)이라는 양면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적응적/부적응적 반응을 유형화하는 척도를 제시하여 기능적 분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Shin 등(2015)은 수치심 경험 척도(ESS)의 한국 타당화 과정에서 기존의 성격·행동·신체 영역에 더해 실패 경험 수치심 요인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는 성취 중

심 사회에서 실패가 수치심 유발의 핵심 맥락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문화적 가치가 정서 유발 요인과 평가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드러낸다.

종합하면, 문화적 자기모델과 사회적 규범은 수치심의 유발 조건(무엇을 수치심으로 해석하는가), 평가·귀인 구조(자기 vs. 타인 중심), 표현·조절 방식(은폐·회피 vs. 사과·복구)뿐 아니라 측정 지표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치심을 단일하고 고정된 범주로 보기보다,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조절되는 정서로 이해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다만 현재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한국 사회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서구·동아시아 등 문화권 간 비교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을 논의할 때, 그것이 보편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 사회의 맥락적 산물인지를 구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는 곧 수치심 연구에서 문화 간 비교 연구를 확장하고, 개별 문화 연구의 발견을 이론적·개념적 수준에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대안적 접근: Gausel & Leach의 평가-느낌-동기 모델

현대 수치심 연구는 H. B. Lewis(1971)가 제시한 개념적 구분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Lewis는 수치심을 ‘전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죄책감을 ‘행동’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여 두 정서를 근본적으로 구별하였다. 이 구분은 이후 수치심 연구의 기본 축을 형성하였고, 수치심을 자기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 정서로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

다. Tangney의 연구는 Lewis의 구분을 실증적으로 확장하였다. Tangney 등 (1989)은 TOSCA를 개발해 수치심(자기 전체 평가)과 죄책감(행동 평가)의 차이가 일상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관찰됨을 보였다. 이어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1992)는 수치심이 회피·은폐·철회 등의 위축 반응과, 죄책감은 사과·복구·책임 수용과 같은 접근적 반응과 각각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두 정서가 상이한 자기평가 구조와 대인적 반응 양상을 지닌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자기의식 정서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동시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대조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은 일관되게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하는 부적응적 정서로, 죄책감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서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의 측정 연구에도 반영되어, 많은 연구들이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과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수치심 경험의 빈도와 내면화 수준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치심을 일상적 자기의식이 아니라 심리적 취약성과 부적응적 경향의 지표로 이해하는 흐름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수치심은 도덕적·사회적 맥락에서의 자기인식 기능보다는, 정신적 고통과 역기능적 반응의 원천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수치심을 고정적으로 병리화하는 접근은 수치심의 복합적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능주의 관점이 주목받게 되었다(Frijda, 1986; Keltner & Gross, 1999). 기능주의적 정서이론은 정서를

환경적 요구에 대한 적응적 조절기제로 이해하며, 수치심이 사회적 관계 유지와 규범 복원의 기능을 지닌 정서일 수 있음을 재조명하였다. 실제로 이후의 경험적 연구들은 수치심이 도덕적 실패를 복구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접근적 행동경향과도 유의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de Hooge et al., 2008; de Hooge et al., 2010; Gausel et al., 2012; Lickel et al., 2014).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자기비난, 위축, 회피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확인되었다(Schmader & Lickel, 2006; Tangney et al., 1996).

수치심이 접근적 결과와 회피적 결과 모두와 연결되는 양가성은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요구하였다. de Hooge 등(2010)은 수치심을 ‘위험받은 자기에 대한 정서’로 이해하고, 상황 평가에 따라 회복동기(restore motivation)와 보호동기(protect motivation)가 분기된다고 제안하였다. 손상된 자기를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적 행동이, 복구가 어렵거나 실패가 반복될 것으로 평가되면 방어적 행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수치심의 이중적 동기 구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여였다. 이어 Leach와 Cidam(2015)은 71편의 연구(90개 표본, N=12,364)를 메타분석하여, 수치심의 접근·회피적 결과가 실패의 복구 가능성(reparability)에 따라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전히 수치심의 기능적 결과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치심이 어떤 심리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 설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적 전개 위에서 Gausel과 Leach(2011)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수치심 개념의 구조적 복잡성과 이론적 분절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주목된다.

이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개념들을 평가(appraisal), 느낌(feeling), 동기(motivation)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세 수준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수치심 경험을 형성한다는 과정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평가 수준에서는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를 구분하여 각각 자기 이미지 위협과 사회적 이미지 위협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고, 느낌 수준에서는 기존에 단일 정서로 다루어지던 수치심의 느낌을 열등감과 거절감으로 분리하여 정서 경험의 질적 다양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기 수준에서는 이러한 평가-느낌 조합이 개선 혹은 방어라는 상반된 동기를 산출한다는 점을 통해 수치심의 이중적 동기 구조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모델이 앞에서 도출한 수치심 연구의 네 가지 핵심 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학문적 의의와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함으로써 수치심 개념을 일관된 구조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가-느낌-동기’ 모델의 구조

Gausel과 Leach(2011)는 도덕적 실패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평가-느낌-동기의 연쇄로 구조화하였다. 그들은 수치심을 고정된 정서 범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실패가 불러일으키는 자기 이미지(self-image)와 사회적 이미지(social-image)에 대한 염려가 서로 다른 평가와 느낌을 거쳐 상이한 동기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치심의 본질은 정서명 자체에 있지 않고, 어떤 평가가 어떤 느낌과 결합되어 어떠한 행동 경향을 유발하는가에 있다(Lazarus,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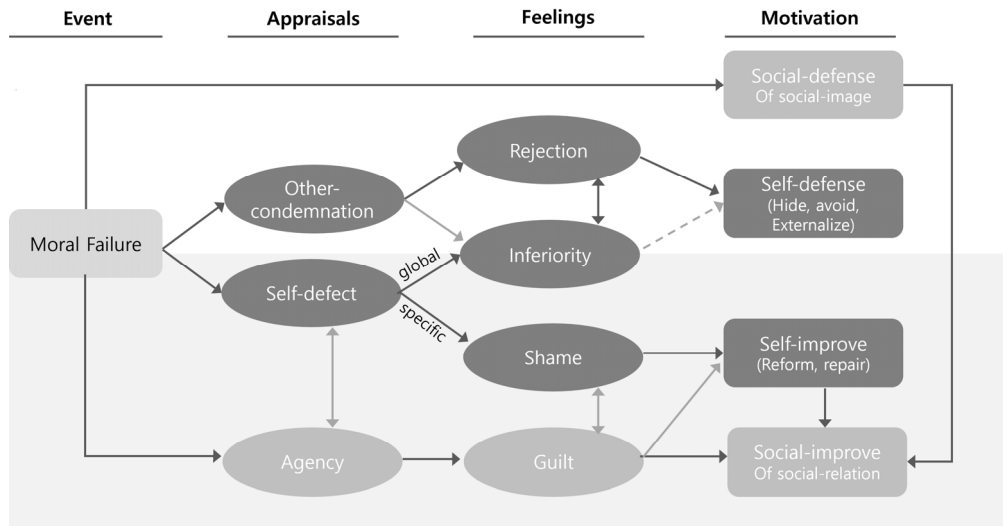
평가: 자기결함과 타인정죄

도덕적 실패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평가하며, 이는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기결함 평가(Appraisal of Self defect)는 실패를 자기 내부의 결함으로 해석하는 평가이다. 전반적인(Global) 자기결함 평가는 자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결함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으로,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와 같은 신념을 포함한다(Lewis, 1971). 이는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느껴질 때 발생하며, 자기효능감의 약화를 수반한다. 반면 특정한(Specific) 자기결함 평가는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와 같이 수정 가능한 한정된 측면의 결함에 초점을 두며, 자기 이미지의 일부 손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Gausel & Leach, 2011). 둘째, 타인정죄 평가(Appraisal of Other condemnation)는 타인이 자신의 도덕적 실패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평판 손상, 사회적 배제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이미지의 위협을 포함한다(Baumeister & Leary, 1995; Scheff, 2003).

Gausel과 Leach는 전반적 자기결함 평가를 수치심과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한 자기결함 평가가 수치심과 결합되며, 전반적 자기결함 평가는 열등감이라는 자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느낌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평가-느낌’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 정서 구조의 구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느낌: 수치심, 열등감, 거절감

이러한 평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느낌(Feeling)으로 이어진다. 첫째, 수치심(Feeling of Shame)은 특정한 자기결함 평가에서 비롯된다.



주. 상단은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concern for social-image), 음영 처리된 하단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염려(concern for self-image). 핵심 모델은 짙은 회색으로 표시.

그림 1. Gausel & Leach(2011)의 평가-느낌-동기 모델
(Reproduced from Gausel & Leach, 2011, Figure 2).

이는 자기 이미지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통회적 자기비판을 포함하며,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다(Lickel et al, 2014). 둘째, 열등감(Feeling of Inferiority)은 전반적 자기결함 평가와 결부되어 자신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느낌이다(O'Connor, Berry & Weiss, 1999). 이는 수치심보다 더 광범위한 자기비난과 무력감을 동반하며, 내면적 철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Gausel과 Leach의 관점에서 열등감은 수치심보다 더 포괄적인 자기 가치의 전면적 손상에서 비롯된 느낌으로, 수치심의 평가 구조가 확대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거절감(Feeling of Rejection)은 타인의 비난과 배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느낌으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다

(Baumeister & Leary, 1995; Gerber & Wheeler, 2009). 이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사회적 회피나 방어 행동을 유발한다. 열등감과 거절감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자기 가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자기결함의 인식은 다시 사회적 배제의 공포를 심화시킨다.

동기: 개선과 방어의 방향으로 분기되는 결과

Gausel과 Leach(2011)의 모델에서 동기(Motivation)는 평가와 느낌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되는 결과적 단계이다. 즉, 도덕적 실패 상황에서 개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경험하고, 이 느낌은 다시 특정한 행동경향으로 이어진다. Gausel과 Leach는 이러한 과정을 네 가지 동기로 구조화하였다.

두 가지는 ‘개선’의 방향-자기개선과 사회적 개선-으로, 나머지 두 가지는 ‘방어’의 방향-자기방어와 사회적 방어-으로 분기된다. 이 네 가지 동기는 도덕적 실패 이후 개인이 자기(self)와 사회(social)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회복하거나 보호하는지를 설명한다.

첫째, 자기개선 동기(Self-improvement Motivation)는 특정한 자기결함 평가와 수치심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손상된 자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접근적 동기를 가지며, 자기반성, 기준 점검, 수행 향상, 노력 강화, 실패 교정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Niedenthal et al., 1994; de Hooge et al., 2010). 이러한 경로는 손상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수치심은 단순한 자기비난이 아니라 자기 교정(reform)과 복구(repair)의 심리적 에너지로 전환된다(Gausel & Leach, 2011).

둘째, 사회적 개선 동기(Social-improvement Motivation)는 자기개선 동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형태로, 손상된 자기 이미지의 회복을 통해 훼손된 대인관계와 공동체적 신뢰를 복원하려는 경향을 포함한다(de Hooge et al., 2008). 이러한 복구 과정은 사과, 보상, 책임 수용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체화되며(Tangney et al., 1996), 특히 죄책감(guilt)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죄책감은 실패에 대한 행위의 인과적 책임(agency)에 초점을 두며(Niedenthal et al., 1994; Roseman, Wiest & Swartz, 1994), 잘못된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수정·보완하려는 정서적 반응을 촉발한다(Gausel & Leach, 2011). 이 때문에 죄책감은 사회적 관계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사회적 개선 동기를 강화한다(Tangney et al., 1996). 반면 수치심(shame)은 행위의 결과보다

그 실패를 초래한 ‘자기(self)’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즉 도덕적 기준 또는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난 자기 이미지의 손상이 핵심이며, 그로 인한 통회와 자기비판은 자기 변화, 기준 재정립과 같은 자기 수준의 복구로 이어진다(Gausel & Leach, 2011). 이러한 자기개선 과정은 다시 대인 신뢰의 회복으로 확장되므로, 수치심 역시 자기개선을 매개로 사회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은 각각 자기(self)와 행위(behavior)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 초점을 지니지만, 도덕적 실패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죄책감은 손상된 결과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치심은 자기 변화를 통해 동일한 목표-사회적 복구-에 도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개선 동기의 기반에는 “자기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라는 전제가 놓여 있으며(Goffman, 1959; Scheff, 2000), 자기 이미지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의 회복은 곧 사회적 관계의 회복으로 연결된다(Gausel & Leach, 2011).

셋째, 자기방어 동기(Self defensive Motivation)는 타인정죄 평가와 거절감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개인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배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기(hide), 회피(avoid), 외재화(externalize)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Gausel & Leach, 2011). 숨기기와 회피는 사회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적 방어 전략으로, 실패나 결함이 타인에게 드러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개인은 실패 사실을 감추거나 관련된 상황을 피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이미지의 추가 손상을 방지한다. 한편 외재화는 보다 인지적인 방어 전략으로, 도덕적 실패를 자신의 도덕성 결함이 아닌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시도이다(Tracy & Robins, 2004). 예컨대 “내가 잘못했다”는 내적 귀인을 “상황이 부당했다”거나 “다른 사람도 그랬다”는 외적 귀인으로 바꾸어 자기결함 인식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열등감은 이러한 자기방어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열등감은 적극적인 외재화나 정당화보다는 수동적 철수와 심리적 위축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자기 존재를 축소시켜 위협을 피하려는 내면적 방어의 형태라 할 수 있다(Gausel & Leach, 2011).

넷째, 사회적 이미지의 사회적 방어 동기(Social Defense of Social Image)는 도덕적 실패가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이미지 보호 동기이다(Gausel & Leach, 2011).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완화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사회적 방어는 공개적 유감 표명, 책임 진술, 겸손의 표현, 체면 유지 노력(face-work; Goffman, 1959)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도덕적 비난이 확산되기 이전에 사회적 이미지를 보호하고 관계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가진다(Keltner & Harker, 1998). Gausel과 Leach는 이러한 사회적 방어를 단순한 회피 전략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 방어가 타인의 정죄와 거절이라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정서 반응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방어는 초기에는 사회적 제

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집단 내 도덕적 지위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복구 가능성을 내포한다(Gausel & Leach, 2011).

결국 Gausel과 Leach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도덕적 실패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적·동기적 반응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구조화하였다. 이 모델은 개인의 평가가 자기 내부와 사회적 관계라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개선과 방어라는 상반된 동기 경로가 분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기결함 평가와 수치심은 자기개선 및 사회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회복적 경로를, 타인정죄 평가와 거절감은 자기방어 및 사회적 방어로 이어지는 보호적 경로를 이끈다. 특히 사회적 방어는 평가 단계 이전, 즉 도덕적 실패 사건 인식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예외적 경로로서, 사회적 제재를 예방하고 관계적 균열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처럼 Gausel과 Leach의 모델은 도덕적 실패 이후 인간의 반응을 단일 정서로 환원하지 않고, 평가-느낌-동기의 연쇄 속에서 ‘자기-사회’와 ‘개선-방어’의 두 축이 교차하는 수치심의 복합적 구조와 상반된 동기 경로를 정교하게 설명했다.

네 가지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대응

본 연구는 Gausel과 Leach(2011)가 제시한 평가-느낌-동기 모델을 토대로, 기존 수치심 연구가 직면한 네 가지 핵심문제를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대응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수치심을 단일 정서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평가와 정서적 반응, 그리고 동기적 결과

를 연계하는 분석 단위를 제시함으로써, 각기 다른 이론적 접근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첫째, 연구 분야별 해석 차이의 통합이다. 수치심은 서로 다른 이론적 전제에 기반하여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다. 한 흐름은 수치심을 자기결함의 인식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관점이며, 다른 흐름은 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로 이해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개인은 실패나 위반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하고, 그로 인해 자기 전체를 결함 있는 존재로 평가할 때 수치심을 경험한다(Lewis, 1971). 이는 수치심을 자기개념의 손상과 결부된 내면적 자기 이미지 위협으로 규정한다. 반면 기능주의적 관점은 수치심을 사회적 평가의 위협에서 비롯되는 정서로 설명한다. 개인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평판이나 지위가 손상되었다고 지각할 때 수치심을 경험하며(Gilbert, 1998; Tracy & Robins, 2006), 이러한 정서는 사회적 규범 준수와 관계 복원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de Hoog(2014)의 소시오미터 관점(sociometer view)은 수치심을 사회적 가치의 저하와 관계적 배제 위협을 감지하는 ‘사회적 감시 체계(social monitoring system)’로 이해하며 기능주의적 설명을 확장한다.

이처럼 전통적 접근은 자기 내부의 전반적 결함 평가를, 기능주의적 접근은 사회적 이미지 위협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수치심은 동일한 명칭 아래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Gausel과 Leach는 수치심을 단일 정서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가 동시에 작동하는 실패 상황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분절을 통합한다. 이 모델은 임

상심리학이 강조한 내면적 자기 이미지 위협과 사회심리학이 중시한 사회적 이미지 위협을 하나의 구조 안에 병치함으로써, 각 접근이 포착해 온 수치심의 서로 다른 해석을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즉, 자기와 사회, 내면과 관계라는 두 층위를 매개하는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수치심 연구의 주요 학파 간 이론적 단절을 완화하고 통합적 설명을 제시한다.

둘째, 유사 정서 간 경계의 명료화이다. 수치심은 오랫동안 열등감 및 거절감과 혼용되어 왔다. H. B.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기 전체가 결함 있는 존재로 평가될 때 발생하는 정서이지만, 이러한 전반적 자기평가는 임상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unlovable self)’라는 무가치감과 무력감을 포함하며 열등감 및 거절감의 정서 구조와 긴밀히 맞닿는다. 그 결과 수치심은 자기비하·위축·회피 행동까지 포괄하는 과도하게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Gausel과 Leach는 이 혼란을 ‘평가-느낌’의 결합 단위로 정교하게 구분하였다. 전반적 자기결함 평가는 열등감으로, 특정한 자기결함 평가는 수치심으로, 타인정죄 평가는 거절감으로 이어진다. 즉 동일한 실패 상황이라도 평가의 초점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이 유발되며, 수치심은 열등감이나 거절감과 구별되는 고유한 평가 구조를 갖는다. 이로써 수치심의 개념적 외연은 한층 명료해졌다.

아울러 이 모델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전통적으로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구분되며(Tangney & Dearing, 2002), 각각 회피적·접근적 반응으로 대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정서는 모두 두 사회적 개선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치

심은 자기개선을 통해 사회적 복구로 확장되며 자기초점(self-focused) 동기를 활성화하고, 죄책감은 행위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행위초점(action-focused) 동기를 통해 직접적 복구를 촉진한다. 따라서 두 정서는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정서라기보다, 평가의 초점과 복구 경로에 따라 분기되는 상호보완적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Gausel과 Leach의 모델은 수치심을 열등감·거절감·죄책감 등 인접 정서들과 명확히 구별하면서도, 이들 간 연속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개념적 중첩과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셋째, 측정의 다양성과 비교 제약의 완화이다. 수치심은 연구자마다 상이한 개념 정의를 전제로 측정되어 왔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TOSCA(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angney et al., 1989)와 상태 수치심·죄책감 척도(SSGS; Marshall et al., 1994)의 비교는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를 잘 보여준다. TOSCA는 시나리오 기반 문항을 통해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수치심을 성향적 특질(trait)로 개념화한다. 그러나 실제 문항은 정서명을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 자기결함 평가, 열등감, 거절감, 회피 동기 등을 함께 포괄하고 있어(Gausel & Leach, 2011), TOSCA가 측정하는 ‘수치심 경향성’은 자기비판적 평가와 회피 반응이 결합된 복합적 구성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SSGS는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을 측정하며, 그 초점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가”에 있다. 이 척도는 도덕적 실패나 사회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 정서 반응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만, 평가 과정이나 이후 활성화되는 동기적 경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실패 상황이라 하더라도, TOSCA는 수치심을 지속적 자기결함의 성향으로, SSGS는 순간적 정서 반응으로 포착하기 때문에 두 척도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요컨대, 두 척도는 수치심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층위의 심리적 현상-성향적 경향성과 순간적 반응-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측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을 구성하는 요소들(평가-느낌-동기)에 대한 이론적 초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Gausel과 Leach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수치심을 고정된 정서명으로 전제하지 않고, 특정한 평가가 어떤 느낌과 결합되어 어떠한 동기를 산출하는가의 연쇄로 파악함으로써, TOSCA가 반영하는 ‘자기결함 평가-수치심-회피 동기’의 경로와 SSGS가 포착하는 ‘순간적 수치심 느낌-즉각적 접근 또는 회피 반응’의 경로를 동일한 구조 속에서 비교·해석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수치심을 정서명 자체로 직접 묻는 대신 평가-느낌-동기의 결합 패턴을 분석 단위로 삼음으로써, 기존 측정 간의 개념적 불일치와 비교의 제약을 이론적으로 완화하고, 서로 다른 수치심 척도가 포착하는 경험의 층위를 공통의 구조적 언어 안에서 정합적으로 위치 지을 수 있게 한다.

넷째, 문화적 해석 가능성의 확장이다. 수치심은 보편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개인의 자기인식과 사회문화적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정서이다. 즉, 동일한 정서 명칭 아

래에서도 그 평가 초점과 기능적 의미는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기 개념의 문화적 차이가 자의식 정서의 경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았고, 이후 연구들(Wallbott & Scherer, 1995; Wong & Tsai, 2007; Fung, 1999) 역시 서구에서는 수치심이 자기가치 손상과 관련된 내면적 위협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관계 회복과 규범 내면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정서로 경험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수치심을 단일 정서 범주로 고정하기보다, 평가-느낌-동기의 결합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경험적 구조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Gausel과 Leach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이러한 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언어를 제공한다. 비록 이 모델이 문화 비교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자기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라는 두 축, 그리고 ‘자기결함’과 ‘타인정죄’라는 평가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구성되는 수치심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서구 문화에서는 자기결함 평가가 도덕적 기준과 자기가치 인식에 결합되어 수치심이 자기 존중감 손상으로 경험되는 반면, 관계 중심적 문화에서는 타인정죄 평가가 사회적 유대의 균형과 복구를 조율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Gausel과 Leach의 모델은 수치심의 문화적 변이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그 다양성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로써 수치심은 개인 내적 실패의 정서라기보다,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해석되는 맥락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이 제시하는 네 가지 이론적 대응은 기존의 분절된 수치심 연구를 구조

적으로 연결하고, 수치심을 다층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Gausel과 Leach의 모델은 이러한 통합의 출발점으로서, 수치심이 도덕적 실패 상황에서 자기 평가와 사회적 평가가 교차하는 심리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델이 제시한 틀은 여전히 확장 가능하며,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수치심을 보다 포괄적인 심리적 경험으로, 나아가 구성적 경험 단위로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와 한계

Gausel과 Leach(2011)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수치심 연구의 오랜 개념적 혼란을 정리하고,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을 하나의 분석 틀로 재구조화한 이론적 전환점이다. 이 모델의 핵심 공헌은 수치심을 단일 정서로 환원하지 않고, 평가-느낌-동기의 연쇄적 구조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인지적 평가, 정서적 반응, 행동 경향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수치심은 도덕적 실패 상황의 단순한 부정 정서가 아니라, 자기와 타인, 평가와 정서, 접근과 회피가 얽혀 있는 구조적 심리 과정으로 위치 지워졌다.

이 모델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 네 가지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이 모델은 수치심 개념의 구조적 통합을 실현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수치심을 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행동 경향성 중 특정 층위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해왔다. Gausel과 Leach는 이를 연쇄적 인과 구조로 통합함으로써, 각 접근이 포착해 온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적 경로 안에서 연결하였다. 특히 ‘평가’를 중심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치

심이 단순 정서 범주가 아니라, 느낌과 동기를 매개하는 핵심적 심리 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내면적 자기위협과 사회적 자기위협을 병치함으로써 수치심의 관계적 본질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연구는 수치심을 주로 ‘변화 불가능한 전체적 자기결함’이라는 내적 위협으로 다루어 왔으나, Gausel과 Leach는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수치심이 개인 내부의 결함 인식과 사회적 평가 염려의 교차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수치심을 개인 내적 실패뿐 아니라 관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정서로 이해하도록 확장시킨다.

셋째, 수치심의 개념적 외연을 정교화 하여 열등감·거절감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Gausel과 Leach는 수치심을 ‘자기결함 평가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느낌(feeling)’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혼용되었던 인접 정서들의 개념적 범위를 재조정하였다. 변화 불가능한 전반적 자기결함은 열등감과 더 가깝고, ‘사랑받을 수 없음’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서는 거절감과 맞닿는다는 구분을 제시함으로써, 수치심을 도덕적 자기평가와 사회적 관계의 틀 안에서 보다 정확히 위치시켰다.

넷째, 수치심의 동기 구조를 체계화하고, 수치심-죄책감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Gausel과 Leach에 따르면 평가-느낌의 조합에 따라 도덕적 실패 경험은 자기개선·사회적 복구·자기방어·사회적 방어의 네 가지 동기로 분기된다. 자기결함 평가는 자기개선 동기로, 타인정죄 평가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 동기로 연결된다. 이는 수치심을 일관된 회피 정서로 간주해 온 기존 이해를 재고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실패 상황

에서도 평가 초점과 느낌의 결합에 따라 상반된 행동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모델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대조적 범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기평가 구조에 기반한 연속적 체계로 재해석함으로써 두 정서가 모두 사회적 개선 동기로 수렴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해체하고, 도덕적 정서의 기능적 상호보완성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사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Gausel과 Leach가 제시한 평가-정서-동기 모델은 수치심의 다차원적 특성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개념적 한계이다. 이 모델은 수치심을 열등감·거절감과 구분해 개념적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수치심을 하나의 ‘느낌(feeling shame)’으로 상대적으로 좁게 정의하였다. 그 결과 실제 수치심 경험이 지닌 복잡성과 역설성-즉 동일한 사건에서 자기개선과 자기방어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내적 긴장-을 수치심 개념 내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워졌다. 모델은 이러한 긴장을 분리된 정서 경로에 배치함으로써, 자기개선·사회적 개선은 수치심 범주 안에 남지만, 자기방어·사회적 방어는 수치심의 외연 밖으로 밀려나 수치심의 다차원적 동기 구조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다. Cibich, Woodyatt & Wenzel (2016)이 지적하듯, 수치심을 지나치게 세분화(customizing)하는 접근은 오히려 수치심의 본래적 통합성과 역설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한계이다. 이 모델은 수치심을 평가 → 느낌 → 동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인

과 구조로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수치심 경험은 순환적이고 상호 구성적이다. 느낌은 평가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평가를 촉발하고, 동기적 반응은 다시 자기평가와 의미구조를 재구성한다. 평가-느낌-동기의 순서를 고정된 구조는 이러한 역동적 순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수치심 경험의 내적 의미 구성 과정을 단순화한다.

셋째, 문화적 한계이다. 이 모델은 도덕적 실패를 개인의 자기평가 차원에서 이해하는 서구적 자기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관계 중심적 문화에서는 수치심이 사회적 조화, 타인의 기대,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경험되며, 평가 구조 또한 외적 관계의 균형과 체면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Gausel과 Leach의 모델은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라는 두 축을 통해 문화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실제 문화적 규범과 관계성의 차이가 수치심의 의미 구성과 동기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공하지 못한다.

요컨대, Gausel과 Leach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수치심 개념의 이론적 분절을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내면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교차 속에서 수치심의 관계적 본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치심을 하나의 ‘느낌’으로 한정함으로써 수치심 경험의 복잡성과 내적 역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수치심 이론의 구조적 정리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이 모델이 제공하는 인과 구조를 기반으로 수치심 경험의 역동성, 문화적 변이, 의미 구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치심을 보다 구성적이고 맥락적인 심리적 경험으로 재정립하는 이론적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

수치심 연구의 오랜 역사는 하나의 근본적 질문으로 수렴된다. 바로 “수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수치심은 자기에 대한 평가인가, 정서적 고통의 질적 성격인가, 혹은 상황에 대한 특정한 기능인가?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은 이 질문에 각기 다른 수준에서 대답해 왔다. 정신분석은 자기 구조의 붕괴와 존재적 상실감을 강조했고, 현상학과 인지적 귀인이론은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수치심을 설명했으며, 기능주의는 관계·규범·평판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응적 기제를 부각해 왔다. 그 결과 동일한 ‘수치심’이라는 용어 아래 이질적인 현상들이 혼재되었고, 무엇을 수치심이라 부를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을 구조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수치심 연구가 직면해 온 네 가지 핵심 문제-연구 분야별 해석의 차이, 유사 정서 간 구분의 모호성, 측정의 다양성과 비교가능성의 제약, 문화적 구성 가능성과 해석의 유동성-를 도출하였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수치심 개념의 분절성과 이론적 불일치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Gausel과 Leach(2011)의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의미 있는 이론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혼재되어 온 인지적 평가, 정서적 경험, 행동적 동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의 연결을 하나의 구조 안에 제시함으로써, 수치심 개념 내부의 복잡성을 정교하게 재배치한다.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의 구분은 연구 분야 간 해석의

단절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수치심의 느낌’에 혼재되어 왔던 열등감·거절감을 분리함으로써 정서적 경험의 질적 차이를 복원한다. 더 나아가 평가-느낌의 조합이 개선 또는 방어 동기로 귀결되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심의 양가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좌표를 마련하였다. 이는 수치심 연구의 개념적 지형을 명료하게 재정립하고, 상이한 연구들이 공통의 구조적 언어 안에서 비교·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몇 가지 이론적·경험적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논문에서 검토한 평가-느낌-동기 모델은 주로 도덕적 실패 상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수치심 경험의 보다 광범위한 맥락-능력 부족, 성취 실패, 관계적 배제, 규범 위반, 사회적 평가 상황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가치 위협 상황에서 평가·느낌·동기의 구조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맥락에 따라 고유한 조절 변인이 존재하는지를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느낌-동기 구조는 연쇄적 인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수치심 경험은 평가와 느낌, 동기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적·순환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사회적 이미지 위협에 대한 즉각적 정서 반응이 평가의 초점을 재조정하고, 그 평가가 다시 동기적 방향성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 구조가 단순한 ‘선형 모델’을 넘어서 상호작용적·동태적 구성 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치심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맥락의 조절을 받는 정서임에도, 기존 연구는

주로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되어 왔다. 자기결함 평가와 타인정죄 평가의 상대적 비중, 열등감·거절감의 정서적 구성, 개선·방어 동기의 우세 패턴은 문화적 가치관, 관계 규범, 집단주의적 기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평가-느낌-동기의 구조가 문화 간에 어떻게 변형되거나 유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넷째, 본 논문은 이론적 비교와 개념적 재구성에 초점을 두었기에,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향후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링(SEM), 다차원 척도 개발, 종단 연구, 맥락 기반 조절모형 등을 활용하여 평가·느낌·동기의 다차원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구체화하고, 상이한 측정도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관된 연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치심은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정서이다. 동시에 수치심은 자기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랑받을 가치에 대한 의문, 관계적 소속감의 흔들림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치심은 단순한 부정정서로 축소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기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예민하게 드러내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수치심을, 평가·느낌·동기의 다차원적 특성으로 분리해 이해하는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경험 단위를 이루는지를 구조적으로 조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는 수치심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는 문제를 넘어,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더 넓은 심리학적 질문과도 연결된다.

수치심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

복합성과 맥락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을 확립하고, 문화·발달·관계적 맥락을 통합하는 이론적 확장을 지속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단지 고통의 정서가 아니라 자기와 타인, 이상과 현실, 기대와 실패가 교차하는 인간 경험의 중심적 장면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정서이다. 그 성찰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로 삼는지,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질문하게 된다. 본 논문이 그 질문을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심 연구가 인간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출발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 Andrews, B. (1998). Methodologic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shame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81-1293.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29-42.
<https://doi.org/10.1348/014466502163778>
- Baek, D. Y. & Lee, H. J. (2017). The effects of shame memory and schematic belief on paranoid tendenci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43-55.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5>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ist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25-6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lum, A. (2008). Shame and guilt,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tology*, 14, 91-102.
<https://doi.org/10.1177/1534765608315561>
- Cibich, M., Woodyatt, L., & Wenzel, M. (2016). Moving beyond “shame is bad”: How a functional emotion can become problematic.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9), 471-483.
<https://doi.org/10.1111/spc3.12263>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https://doi.org/10.1300/J020v04n02_12
- de Hooge, I. E. (2014). The general sociometer shame: Positive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an ugly emotion. In *Psychology of shame: New research* (pp. 95-110). Nova Science Publishers, Inc. <http://hdl.handle.net/1765/51671>
- de Hooge, I. E., Breugelmans, S. M. & Zeelenberg, M. (2008). Not so ugly after all: When shame acts as a commitment devic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933- 943. <https://doi.org/10.1037/a0011991>
- de Hooge, I. E., Breugelmans, S. M., Wagemans, F. M., & Zeelenberg, M. (2018). The social side of shame: Approach versus withdrawal. *Cognition and Emotion*, 32(8), 1671-1677. <https://doi.org/10.1080/02699931.2017.1422696>
- de Hooge, I. E.,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10). Restore and protect motivations following shame. *Cognition and Emotion*, 24, 111-127. <https://doi.org/10.1080/0269993080258446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W. W. Norton & Company.
- Ferreira, C., Moura-Ramos, M., Matos, M., & Galhardo, A. (2022). A new measure to assess external and internal sham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Current Psychology*, 41(4), 1892-1901.
- Ferguson, T. (1996). (Dys) functional Guilt and Sham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 Ferguson, T. J., & Crowley, S. L. (1997). Measure for measur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2), 425-4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6902_12
- Freud, S. (1923/1961). The id and the ego.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pp. 12-66). London: Hogarth Press.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ng, H. (1999). Becoming a moral child: The socialization of shame among young Chinese children. *Ethos*, 27, 180-209. <https://doi.org/10.1525/eth.1999.27.2.180>
- Gausel, N. & Leach, C. W. (2011). Concern for self-image and social image in the management of moral failure: Rethinking sha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4), 468-478. <https://doi.org/10.1002/ejsp.803>
- Gausel, N., Leach, C. W., Vignoles, V. L. & Brown, R. (2012). Defend or repair? Explaining responses to in-group moral failure by disentangling feelings of shame, rejection, and inferio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41-960. <https://doi.org/10.1037/a0027233>
- Gerber, J., & Wheeler, L. (2009). On being rejected: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reje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5), 468-488. <https://doi.org/10.1111/j.1745-6924.2009.01115>
- Gilbert, P. (1998). What is shame? Some core issues and controversies. In P. Gilbert & B. Andrews (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3-36).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P. (2010). *Compassion focused therapy: Distinctive features*. Routledge.
- Gi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7(3), 174-189.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https://doi.org/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

- Gilbert, P. & Andrews, B. (Eds.). (1998).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nchor Books.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149-X](https://doi.org/10.1016/0191-8869(94)90149-X)
- Greenberg, L. S. (2004). Emotion-focuse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1(1), 3-16. <https://doi.org/10.1002/cpp.388>
- Hong, R. W. (2016). A reconsideration on Heinz Kohut's framework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Korean experience of shame: Objective self-awareness in shame. *Theology and Praxis*, 48, 171-194.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Plenum Press.
- Izard, C. E. (1984). Emotion-cognition relationships and human development.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17-37.
- Kang, M., Byeon, S. & Choi, H. (2024). Valida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9(5), 889-908.
- Keltner, D., & Buswell, B. N. (1997). Embarrassment: its distinct form and appeasement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2(3), 250.
<https://doi.org/10.1037/0033-2909.122.3.250>
- Keltner, D., & Gross, J. J. (1999). Functional accounts of emotions. *Cognition & Emotion*, 13(5), 467-480.
<https://doi.org/10.1080/026999399379140>
- Keltner, D., & Harker, L. (1998). the Nonverbal Signal of Shame.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78. In P. Gilbert & B. Andrews (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78-98).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H.,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1), 68-96.
<https://doi.org/10.1037/a0021466>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ach, C. W. (2017). Understanding shame and guilt. In L. Woodyatt, E. Worthington, M. Wenzel, & B. Griffin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Self-forgiveness* (pp. 17-28). New York: Springer.
- Leach, C. W., & Cidam, A. (2015). When is shame linked to constructive approach orienta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983.
<http://dx.doi.org/10.1037/pspa0000037>
- Lee, I. S. (2018). *Development of The Shame-inducing Situation Inventory and Study on Subtype Classification of Shame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Free Press.
- Lewis, M. (2008).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3rd ed., pp. 742-756). Guilford Press.
- Lickel, B., Kushlev, K., Savalei, V., Matta, S. & Schmader, T. (2014). Shame and the motivation to change the self. *Emotion*, 14(6), 1049-1061. <https://doi.org/10.1037/a0038235>
- Lickel, B., Schmader, T., Curtis, M., Scarnier, M., & Ames, D. R. (2005). Vicarious shame and guil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2), 145-157.
<https://doi.org/10.1177/136843020505106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
- Marschall, D., Sanftner, J., & Tangney, J. P. (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4, 371-392.
- Mason, M. (2010). On shamelessness. *Philosophical Papers*, 39(3), 401-425.
<https://doi.org/10.1080/05568641.2010.541632>
- Miller, R. S., & Tangney, J. P. (1994). Differentiating embarrassment and sha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3), 273-287.
<https://doi.org/10.1521/jscp.1994.13.3.273>
- Morrison, A. P. (1989). *Shame: The underside of narcissism*. NY: The Analytic Press.
- Nam, K. S. (2008). *Coping strategy effects on psychological symptoms associated with shame- and guilt-inducing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Niedenthal, P. M., Tangney, J. P., & Gava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585-595.
<https://doi.org/10.1037/0022-3514.67.4.585>
- O'Connor, L. E., Berry, J. W., & Weiss, J. (1999). Interpersonal guilt, sham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81-203.
<https://doi.org/10.1521/jscp.1999.18.2.181>
- Piers, G. & Singer, M. B. (1953).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a cultural study*. Springer.
- Reimer, M. S. (1996). "Sinking into the ground":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sham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Review*, 16(4), 321-363.
<https://doi.org/10.1006/drev.1996.0015>
- Scheff, T. J. (2000). Shame and the social bond: A sociological theory. *Sociological theory*, 18(1), 84-99.
<https://doi.org/10.1111/0735-2751.00089>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https://doi.org/10.4324/9781315680019>
- Schore, A. N. (1996). The experience-dependent maturation of a regulatory system in the

- orbital prefrontal cortex and the orig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1), 59-87.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6970>
- Schore, A. N. (1998). Early shameful experiences and infant brain development. In P. Gilbert & B. Andrews (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57-7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J. E., Kim, S. M., Jeon, M. Y., Park, D. H., Yoo, S. H., Ha, J. H. & Yoo, J. H. (2015).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K-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1), 23-39.
- Simonds, L. M., John, M., Fife-Schaw, C., Willis, S., Taylor, H., Hand, H., ... & Winton, H.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dolescent Shame-Proneness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549-561.
<https://doi.org/10.1037/pas0000193>
-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91-102.
<https://doi.org/10.1016/j.jrp.2009.12.005>
- Tangney, J. P.,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 Tangney, J. P., Dearing, R. L., Wagner, P. E., & Gramzow, R. (1989). *Test of self-conscious affect-3*. <https://doi.org/10.1037/t06464-000>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256>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What's moral about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21-37.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https://doi.org/10.1037/0022-3514.62.4.669>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 into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2), 103-125.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2_01
- Tracy, J. L. & Robins, R. W. (2006). Appraisal antecedents of shame and guilt: Support for a theoretical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0), 1339-1351.
<https://doi.org/10.1177/0146167206290212>
- Tomkins, S. S. (1962). *Emotion/imagery/consciousness, Vol. 1: The positive emotio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Tomkins, S. S. (1963). *Emotion/imagery/consciousness, Vol. 2: The negative emotio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Tomkins, 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The Guilford Press.

- Wallbott, H. G. & Scherer, K. R. (1995). Cultural determinants in experiencing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465-487). Guilford Press.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https://doi.org/10.1007/978-1-4612-4948-1>
 - Wong, Y. & Tsai, J. (2007). Cultural models of shame and guilt. In J. L. Tracy, R. W. Robins & J. P. Tangney (Eds.),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pp. 209-223). Guilford Press.
 - Wurmser, L. (1981). *The mask of sham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Wurmser, L. (1987). Shame: The veiled companion of narcissism.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Yang, S. K. & Lee, S. H. (2024).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shame: Exploring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15(4), 259-279. <https://doi.org/10.21197/JCEI.15.4.13>
- 1차원고접수 : 2025. 04. 29
2차원고접수 : 2025. 09. 17
최종게재결정 : 2025. 10. 19

A Review of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hame: Conceptual Confusion, Theoretical Fragment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ppraisal-Feeling-Motivation Model

Miyoung Jung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reviews how the concept of shame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across academic fields and examines its multidimensional structure. By analyzing psychoanalytic, emotion-theoretic, phenomenological, cognitive-attributional, and functionalist approaches, the review identifies four recurrent issues in shame research: disciplinary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mbiguity in distinguishing shame from related self-conscious emotions, diversity in measurement tools and the resulting limitations in cross-study comparability, and cultural variability in conceptual construction and flexibility in interpretation. The study then examines how the appraisal-feeling-motivation model proposed by Gausel and Leach (2011) provides theoretical responses to these issues. The model distinguishes self-defect appraisal from other-condemnation appraisal, separates shame from inferiority and rejection, and demonstrates how specific appraisal-feeling combinations are linked to either improvement motivation or defensive motiv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review conceptualizes shame not as a single emotion but as a sequence of multidimensional appraisal-feeling-motivation processes that collectively constitute the experience of shame. Overall, the study reorganizes the conceptual landscape of shame and offers an integrative foundation for futur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Key words : Shame, Self-conscious emotions, Cognitive appraisal, Motivation, Cultural context